

최근 일본 쌍안경시장 동향

1. 일본 쌍안경업계의 역사

1) 전후 일본 쌍안경업계의 발전과정

일본의 쌍안경업계는 東京都, 板橋區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明治 初年 板橋區에 陸軍造兵廠, 火工廠, 板橋火藥製造所 등의 군 관련공장이 설립되었고, 그뒤 이들 군 관련 공장들의 하청공장이 주변에 들어섰다. 그리고 뒤따라 東京 光學 등의 정밀기계기업 및 기타 기계금속공업이 몰려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군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일본 쌍안경업계는 생산체제를 확립하고 1947년 GHQ로부터 수출품목으로 승인을 얻어 수출산업으로 발전해 왔다.

전후 일본경제는 섬유, 잡화, 경기계공업으로 버텼다. 경기계공업부문중 쌍안경산업은 미싱과 같이 수출주도산업으로 발전해온 특징을 지니고

있다. 수출주도 산업으로서의 쌍안경산업은 그만큼 전후 외화부족상태에 있는 일본의 외화획득에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본은 쌍안경의 총생산량중 90% 이상을 수출에 의존했으며, 그 대부분은 미주 지역에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1945년, 1955년대에 일본 쌍안경업계가 쌍안경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전쟁 전의 쌍안경 기술을 민생용으로 발전시키고, 제품의 품질 및 가격면에서 국제경쟁력이 뛰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당시 일본은 일부 고급품을 제외한 세계 최대의 쌍안경 생산국이 되는데 성공했다.

한편, 당시 쌍안경 생산은 조립방식에 따라 극도의 분업화를 요하기때문에 소자본에 의한 개업이 용이했다. 그 결과 수출증가에따라 판교를 중심으로 쌍안경 생산업체수는

급증하고 기업간의 경쟁이 격화되어 해외 바이어들에 의한 쌍안경 가격이 급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같이 쌍안경업체간 경쟁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으나 수출 채산성의 악화로 정부는 '중소기업단체법', '수출무역관리령' 등을 통해 쌍안경업계의 근대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수출수량 및 가격을 규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쌍안경 관련 수출규제는 쌍안경업체들의 수출수익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수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1965년대에 홍콩, 소련도 세계 쌍안경시장에 진출,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으나 아직 일본의 경쟁상대로는 인식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 일본의 쌍안경 생산, 수요동향

전후 일본의 쌍안경업계는

제품 수출을 통해 급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1971년 닉슨쇼크에 따른 고정환율제 붕괴, 1977~1978년의 제1차 엔고현상 발생, 그리고 1985년 9월, 선진5개국 재무장관회의 후, 엔고현상 발생은 일본 쌍안경 업계의 수출 채산성을 저하시켜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이 기간동안 NIES라고 불리는 신흥공업국가들이 쌍안경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일본의 독점 상태는 끝났다.

이와같은 일본 쌍안경 업계의 주변환경변화는 이들 기업의 쌍안경 생산 및 수출량 감소를 초래, 업계 통폐합에 의한 재편성을 하기에 이른다. 그결과 판교구에 위치한 3백개 정도의 쌍안경메이커들이 1990년에는 30개로 종전의 $\frac{1}{10}$ 까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엔고현상에 의한 수출채산성 악화 및 수출량 감소는 쌍안경메이커들로 하여금 수출시장에서 내수시장으로 관심을 전환시켰으며, 또한 1980년부터 東京都의 産業振興事業에 의해 내수전환이 도모, 수출이 감소하는 한편 내수확대가 이루어졌다.

사단법인 일본 쌍안경공업회 조사에 따르면 1984년 헬리혜성 特需로 쌍안경 수출량이

4백60만개로 피크를 이루었으나 1991년에는 2백75만개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내수물량은 1985년 1백만개에서 1991년에는 2백만개까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한편 1985년 이후 쌍안경 수출이 감소세를 보인 반면 내수는 착실히 성장, 수량베이스로 1984년에는 5백35만개가 그리고 1987년에는 4백27만개로 1984년 대비 20% 감소세를 보여 1991년에는 4백74만개를 생산, 1984년 대비 10% 감소세를 보였다.

아울러 금액면에서는 1984년에 2백84억엔을 그리고 1987년에는 1백91억엔의 쌍안경을 생산, 1984년 대비 30% 감소세를 보였다.

2. 쌍안경 수요 특징

1) 내수확대 요인과 전망

쌍안경의 내수확대는 일본 쌍안경업계가 엔고현상으로 인한 수출감소 대책으로 적극 대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도 성장으로 인해 일본의 고소득 국가로 된 경제적인 효과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세계적으로 보아 쌍안경은 생활에 여유가 있는 고소득자층 및 고소득국가 지향적인 상품으로 야생조류를 비롯한 자연관찰, 스포츠관람의 용도로

쓰이고 있다.

1945~1955년대의 경우, 미국이 세계 쌍안경수요의 대부분을 점유했었으나 근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소득 국가가 된 일본이 쌍안경 수요를 확대해나가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쌍안경의 잠재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에는 일본 유수의 카메라 메이커들이 광학분야의 하나로서 쌍안경시장에 눈을 돌려 판매에 주력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라 하겠다. 이들 카메라메이커들의 경우 대체로 직접 쌍안경을 생산하기 보다는 중소 쌍안경메이커들에게 하청을 주어 자사브랜드로 판매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1992년 6월, 각료회의에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生活大國 5個年計劃—地球社會와의 共存을 향해'라는 것을 결정,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주당 40시간 노동'과 '연간 총 1800시간 노동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일본에서는 이미 1992년 9월부터 월1회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국민의식도 '돈'보다는 '자유시간'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향후 쌍안경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 쌍안경 수입의 특징

쌍안경의 국내 수요증대, 엔고현상, 그리고 신흥공업국가들의(NIES) 쌍안경 생산국화로 최근 일본의 쌍안경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대장성이 발표한 통관통계에 따르면, 프리즘 및 갈릴레이쌍안경을 포함한 쌍안경 수입량은 1988년 4억3천2백52만 엔에서 1992년에는 10억7천1백4만 엔으로 3년간 2.5배나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국별로는 변동이 커서 NIES 국가들중 한국과 대만이 1989년 일본 쌍안경 총수입량의 $\frac{2}{3}$ 를 점유했던 것이 지난 1991년에는 30%를 밀들고 절대 금액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대신 중국, 필리핀이 1991년 일본 쌍안경 총수입량의 40% 이상을 점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과같은 일본의 쌍안경 수입선 변환은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일본기업층의 경영전략적인 측면도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 보다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수입쌍안경은 저가품이라는 점이다. 즉 수입통계에서 수량베이스가 발표되지 않았기때문에 수입단가는 불확실하지만 한국, 대만이 경제발전애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인

건비가 저렴한 중국, 필리핀 등에 가격경쟁력면에서 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때 일본에 수입 쌍안경은 저임금에 의한 저가품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셈이 된다.

둘째, 유감스럽게도 한국, 대만의 쌍안경 생산기술력 및 품질이 개선되고 있지않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인건비가 상승하면 그에 대응하여 생산성이 향상되고, 보다 고급기종으로의 품질이 개선되며 제품교체가 필요하게 되지만, 이들과로부터의 수입금액의 감소는 그것이 성공하고 있지않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상으로 판단한다면, 1992년 상반기 동안에는 일본 국내 경기악화에 의해 쌍안경 수입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일본의 경제발전,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해 쌍안경 수요확대는 물론 수입증가도 예상되지만, 이들 수입쌍안경은 당분간 저가품에 그쳐 일본메이커들과의 경쟁은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NIES국가들의 쌍안경기술 수준이 앞으로도 계속 현상태에 머물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다. 점진적인 기술향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 이에 대비해 일본 쌍안경업계는 생산성 향상에 의한 가격

경쟁력 유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디자인, 기능 및 성능 등의 비가격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수입품에 국내시장을 잠식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 쌍안경 수입현상을 관망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본다. 이에따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쌍안경 부품생산업체들을 포함한 조립, 생산업체들의 전반적인 수준향상이 필요하다.

3) 쌍안경 수출시장 동향

엔고현상은 현지 결재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일본의 쌍안경 수출량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일찌기 일본 쌍안경업계의 전체 수출량 가운데 80% 이상을 점유하던 미국의 비중은 과거 피크였던 1984년에는 수량면에서 60.9%, 금액면에서는 58.0%로 전체 수출량의 60% 수준을 점유했었으나 지난 1992년 1월~6월 동안에는 각각 39.6%, 41.4%로 40%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달리 중동,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지로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일본기업들의 미국시장에 쌍안경 수출비중 저하는 '대미 수출량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쌍안경 수출시

장이 그만큼 넓어지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세계 경제발전예 따른 소득 수준 향상은 1985년 이후 일본 내수시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쌍안경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결국 NIES 국가들이 세계 쌍안경시장에 진출해올지라도 일본기업들이 국제경쟁력 유지 및 향상에 주력한다면, 일본기업의 세계 쌍안경시장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 최대 쌍안경시장인 미국의 경우, 쌍안경 수입량이 1987년 3백60만개에서 1990년에는 2백84만8천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본의 대미 수출량은 1백82만8천개에서 1백10만6천개로 대폭 감소되고, 시장점유율도 50.8%에서 38.8%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10%까지 확대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과세대상액을 기준으로 한 쌍안경의 대미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 독일이 165.0불, 일본은 40.0불로 독일의 1/4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은 23.9불, 중국은 9.5불로 쌍안경의 대미 수출량은 각각 일본의 1/4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쌍안경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품중 최고품분야는 독일산, 중급분야는 일본산, 저급분야는 한국, 홍콩, 대만산이 그리고 보다 하급품은 중국산이 시장점유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급품의 수요는 경기상태에 따라 변동이 크기때문에 최근의 단기적인 동향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나, 미국시장에서는 달러하락에 의한 쌍안경 가격의 상승이 일본제품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NIES국가들과의 경합을 피해 독자적으로 고급품을 특화시키더라도 시장의 한정성으로 쌍안경수출, 수량, 금액의 격감을 피할 수 없게된다.

이와같은 상황은 다른 시장에서도 같기에 일본 쌍안경업체는 거래량이 많은 중급품 분야에서 가격, 비가격 경쟁력의 유지, 향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일본 쌍안경 생산, 유통구조의 특징

쌍안경 생산공정은 광학부품계와 경통부품계의 부품제조업과 이를 중심으로 하는 쌍안경제조업(렌즈제작-조립-조정-검사)으로 이루어진다.

쌍안경은 100개 이상의 부

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의 전체 생산량은 연간 4백~5백만개에 달하고 있다. 또한 쌍안경은 수요변동이 큰대다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 완성품(조립)업체는 적고 공정별 분업화된 형태로 부품을 공급하는 많은 부품 전문생산업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밖에 최종 조립단계에서도 '調整社'라고 불리는 하청임가공업체가 상당수 존재하여 완성품메이커들을 지탱해주고 있다.

한편 유통구조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직수출이 극히 적고 대부분이 상사 등의 수출업자에 의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쌍안경메이커들이 직접 수입업자와의 상담 및 계약을 체결, 물류 수속만을 수출업자에게 맡기는 방식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브랜드는 대부분 바이어브랜드로 판매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본 내수시장에서 쌍안경은 주로 도매업자를 거쳐 소매점에 이르는 간접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카메라메이커들의 경우는 OEM으로 쌍안경을 공급받아 자사 판매루트를 통해 유통시키고 있다.

<일본 광학신문 1401-1419호>